

영광 법성포단오제 ‘대폭 축소’

6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공식행사 모두 취소 ‘제천행사’만 진행
법성포단오제 보존회, 절감한 축제예산 ‘코로나19 극복’ 투입에 흔쾌히 동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영광 법성포단오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를 대폭 축소해 개최한다.

영광군은 오는 6월11일~14일 4일간 열리는 ‘2021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제천행사’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년 연속 축제 축소는 법성포단오제 보존회 측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에 쓰일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에 집중시키는데 흔쾌히

동의하면서 가능했다.

공식행사 취소로 국악경연대회, 단오장사 씨름대회, 관광객과 함께하는 단오 퍼레이드, 강강술래, 단심줄 놀이 등의 프로그램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단오제의 전통 계승과 보존을 위해 ‘용왕제·산신제·당신제·선유놀이’ 등의 제천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음력 5월5일 ‘단오(端午·수릿날)’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센 날로 농경사회에서는 파종과 모내기를 마친 후 그네뛰기, 탈춤, 씨름 등 민속놀이를 즐기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휴식을 취했던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다.

영광군 관계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법성포단오제가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쉬어가게 돼 아쉽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할 때”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국고 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빛그린 국가산단 진읍도로 확장 및 개설 등 3개 사업 건의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빛그린 국가산단단지 진입도로 확장 및 개설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이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주철현 국회의원 등을 찾아 면담을 갖고 국고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

하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로 주민편익을 위한 국비사업에 대해 연차적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가 이날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은 ▲빛그린 국가산단단지 진입도로(함평방면) 확장 및 개설건(100억 원) ▲함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50억 원)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건의(428억 원) 등 총 3개 사업 578억 원이다.

이 군수는 “장기화 된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여건이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군 지역현안사업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권·중앙부처 할 것 없이 수시로 방문해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상반기(2차)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

26일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영암군은 26일까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2차)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이 해당되며 100시간 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첫 개소

다음달 중 안좌도 2945명·자라도 276명 1인당 최대 160만원 신안상품권 지급 계획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안군 신재생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정 2018. 10. 5.)에 따라 SPC 자기자본 30% 또는 사업비의 4% 이상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참여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라도 24MW, 안좌도 96MW)가 지난 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되었다.

안좌, 자라 주민협동조합은 신안군의 첫 협동조합으로서 지난 15일 안좌면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정광호 전라남도의원, 신안군의회 위원을 비롯하여 자라도, 안좌도 협동조합 이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컷팅식 등을 가졌다.

주민 협동조합은 4월중에 안좌도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 대해 1인당 연간 최대 약160만원~40만원을 1004점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안좌도 협동조합 김정대 조합장은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등 활용 주민평생 연금 정책을 추진해준 박

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 의회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동조합으로 군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추진한 정책에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주셔서 평생연금이 실현되었다”며 “앞으로 지도, 사육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해상 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30세 이하는 즉시, 만40세 이하 전입후 1년, 만50세 이하 전입후 2년, 만50세 초과는 전입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목포시,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

조합-조선내화-시민단체 상생 추진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해온 서산동·온금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노후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산·온금지구는 지난 2008년 주민 주도형 재정비 사업으로 발표된 뒤 2012년 고층아파트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 후 2017년 12월 조선내화주식회사 구)목포공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어 2020년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유달산 경관 훼손과 관광·문화 활성화를 이유로 뉴타운식 고층아파트 개발방식에 반대하며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개발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상생방안을 조합에 설명했고, 이후 수차례 협의 끝에 조선내화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저층테라스를 혼용하는 개발방향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다.

또 시민사회단체를 수차례 만나 상생안 합의에 대한 조합의 양보와 개발지역에 따른 조합원의 어려움을 설명해 서산온금지구 촉진구역 해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알렸고, 조선내화는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보수·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선내화에서 건축대수선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농업 경쟁력 향상’ 농기계 구입 지원

무안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드론, 지게차 등 33억 원 규모의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기계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농가 선정은 사업계획서 평가, 보조금 지원 이력, 영농규모, 친환경농업 인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형 농기계 311대, 중대형 농기계 77대, 농업용 드론 27대, 농업용 지게차 28대, 곡물건조기 14대, 광역살포기 1대 등 545대를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 이전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황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적·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